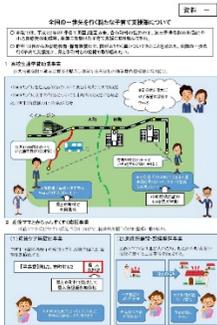


일본에서 한발 앞선 육아 지원책 ~불임 치료비 지원 확충, 산후 조리 무상화,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창설~

돗토리현



불임 치료



통학비 지원, 산후 조리 무상화

상황(배경,
목적 등)

돗토리현은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를 개국한 이래,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본의 육아 지원책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2008년에 1.43까지 저하된 합계특수출생률이 최근 1.6대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희망출생률(1.95)에는 미치지 못하고 출생수가 매년 감소했다. 이에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도부터 돗토리현의 육아 지원책 개선 사업을 새로 추진했다.

내용(사업
개요 등)

- (1) 소망에 부응하는 임신·출산 응원 사업
불임 치료비 조기 개시에 대한 계기가 되고 불임검사 등과 관련된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2) 산후 엄마와 아기 쑥쑥 응원 사업
산후우울증 및 아동 학대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산후 조리 사업과 관련된 이용자 자기부담액을 무상화하는 등
- (3)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
통학 비용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학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돗토리현 내 고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비를 지원

효과(특징,
선진성, 향후
전개 등)

- (1) 검사비 지원 실적이 약 2배로 증가. 검사비 전액 지원은 일본 최초.
- (2) 산후 조리 사업 이용자가 대폭 증가. 현 전역의 이용자 부담 무상화는 일본 유일.
- (3) 돗토리현·기초자치단체 협동사업이 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증가. ‘소득 제한이 없는’ 제도는 일본 유일